



필리핀 투자 뉴스

2009. 4.30, Bi-Weekly, No. 19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마닐라

Focus

필리핀 클락경제자유구역 제조, IT, 관광 투자기지로 각광: 2008년 투자 규모 전년비 3배 이상 증가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옥수수 가격, 한국기업과 합작 추진: 한국기업의 바이오연료, 식용 작물 Plantation 투자 문의 잇따라
필리핀 석유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 외국기업과 합작 추진 등: 캐나다 기업과 포괄적 협력 합의, 한국기업과 합작 가능성도 검토

투자 Project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구리,금,은 광산 프로젝트 1

투자프로젝트 정보-구리,금,은 광산 프로젝트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경제 단신

Iloilo 시, 비즈니스 지구 및 항구 현대화 프로젝트 투자가 찾아

Calaca 석탄화력발전소(600mw급) 민영화 재입찰(7.7)에 10여개사 관심 표명

필리핀 정부, 5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Leyte, Kananga 지역 선정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 위해 매년 US\$16억 달러 소요

Iloilo 시 수력, 풍력분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검토

Tampakan 구리 광산개발, 60억 달러 투자 필요

필리핀 전력규제 당국(ERC), 메탈코사 전기요금 인상 승인

ADB,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 위해 US\$16억불 자금 필요

투자진출 A to Z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송금세 적용은?

주요 경제 지표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탈(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 작성 :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전화 : +63-2-893-3244
- 팩스 : +63-2-817-3369
- 홈페이지 : www.kotra.or.kr/manila
- 이메일 : manila@kotra.or.kr, hanskim@kotra.or.kr



Focus

필리핀 클락경제자유구역 제조, IT, 관광 투자기지로 각광
- 2008년 투자 규모, 전년비 3배 이상 증가 -

-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 외국기업 투자지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지역임. (수빅만자유구역, 세부 지역 투자 정보는 Global Window 2008.12.23, 11.13일 게재 정보 참조) 임.
- 클락자유구역(총 33,000ha)은 1991.11월까지 美공군기지 였으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필리핀내 대표적인 경제 특구로 개발. 개발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동 지역을 CSEZ(Clark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클락개발공사(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을 1993.4월에 설립
- 과거 美 공군기지 였던 만큼 잘 정비된 도로(200 km에 달하는 2~3차 간선도로 보유)와 국제공항 보유(DMIA, Diosdado Macapagal Int'l Airport), 쾌적한 주거환경, 편의시설이 장점임.
- 특히 메트로마닐라와 근접성 및 발달된 인프라가 매력 요인으로, 2008년 클락구역 투자유치액은 96억페소로 전년비 3배 이상 증가. 특히 관광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며, 그 중 대표적인 건은 필리핀 기업인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사의 카지노 호텔 투자건(10.7억 페소), 한국기업인 CPR Palm Resort의 은퇴촌 프로젝트(2.1억 페소), 또 다른 한국기업인 A-Peach 사의 건강리조트 프로젝트(2.4억 페소) 등임.
- 클락은 마닐라 북서쪽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 특히 North Luzon Expressway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으며, 지난해 부분 개통한 Sbbic-Clark-Tarlac 고속도로(SCTEx) 이용시 인근 수빅 자유무역지대까지 30분 남짓 소요
- 이외 CIAC(클락국제공항공사)는 메트로 마닐라와 클락공항을 잇는 120km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이는 클락공항 확장계획 일환으로 현재 마닐라국제공항인 NAIA 공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을 염두한 계획임(NAIA 공항 이용객은 연간 25백만명 수준), 일부 필리핀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검토중임.

□ 필리핀 지역은 클락자유구역과 수빅만자유구역(1991까지 미해군기지 존재)을 동남아 물류, 서비스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하에 개발 추진

- 이를 위해 DMIA를 확장 보수(제3활주로 및 국제선 터미널 건설) 하고 이를 전후한 장단기 개발 계획 수립, DMIA의 현재 연간 수용 승객규모는 2백만 명이며, 매일 1회 인천-클락 간 직항 노선을 운영중인 아시아나 등 5개 항공사 취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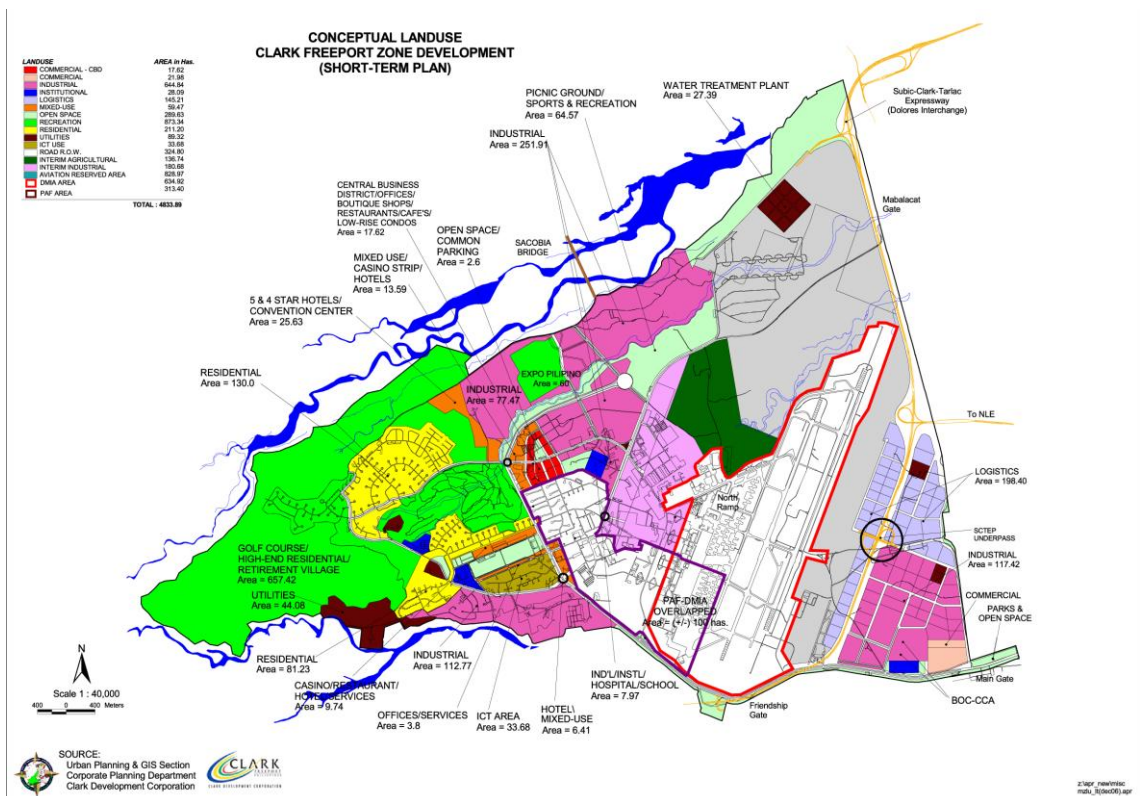
- CDC는 클락자유지대를 4,400 ha의 주개발지구(Main Zone) 와 27,600 ha의 Sub Zone로 나누어 투자기업 유치중임.

- CDC의 주요 투자유치 산업은 항공/물류, 제조, IT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 중심), 관광(은퇴촌, 테마파크, 골프리조트 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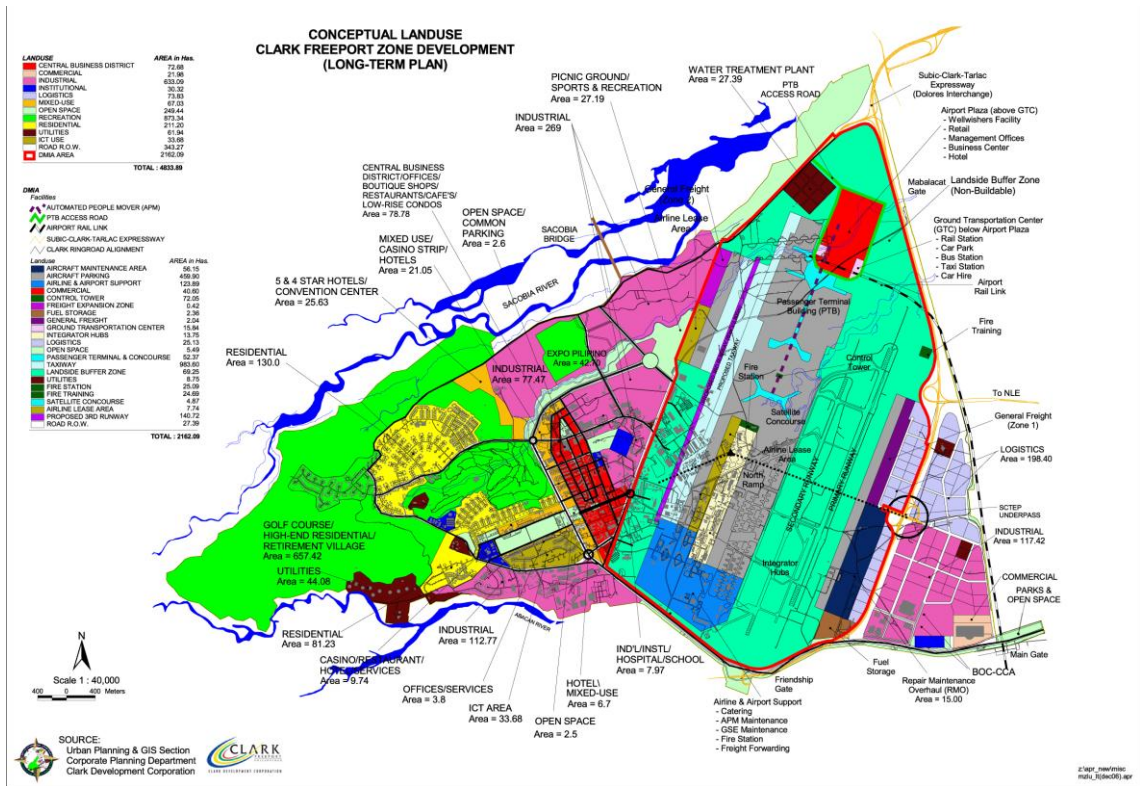
- CDC는 현재 클락경제자유구역을 산업/물류 지구, 상업지구, 주거/관광지구, ICT 지구로 나누어 개발 중이며, 임대가능 지구 및 면적은 CDC 웹사이트(<http://www.clark.com.ph/?module=Areas>)에서 확인 가능함.

클락경제자유구역 장단기 개발 계획

- Short-Term Plan



- Long-Term Plan



자료: cdc.com.ph

□ 2008 년말 기준, 클락자유지대에 진출해 있는 한중일 투자기업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현재까지 한국투자기업이 가장 많은 33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일본이 28 개, 중국이 12 개 순임.

클락자유구역내 한중일 투자기업수 현황

	2006 년 이전	2007 년	2008 년 상반기	2008 년 하반기	합계
한국	16	7	4	6	33
중국	11	0	1	0	12
일본	22	5	0	1	28
합계	49	12	5	7	73

자료: 클락개발공사(CDC)

□ 클락경제자유구역내 최근 주요 투자 건의 움직임은 아래와 같음.

- 미국 반도체기업인 Texas Instrument 사 2009.3 월, 15 억 달러 투자 완료, 반도체 조립가공/테스트 공장 설립
- 클락국제공항공사(CIAC) 신청사(터미널 2) 2010 년 오픈 예정, 사업규모는 40 억 페소(약 83 백만 달러), 연간 3 백만명의 승객 수용 예상. 동 신청사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의 삼일프라이스윈타하우스쿠퍼스사와 프랑스의 SNC Lavalin International 사가 LOI 를 제출했으며, 이외 필리핀의 Pacific Avia Group, R-II Holdings 사가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임. 작년 미국의 Admiral Energy LCC 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이후 역량있는 공항운영 파트너를 찾지 못함에 따라 2008.11 월 수주가 무효화 된바 있음.
- 2008.1 월 열린 대만-필리핀 경협협위에서 부지임차료 면제(클락, 수빅소재 대만기업에게만 적용, 25 백만 달러 이상 투자시, 3~5 년간 적용), 관세감면 등 인센티브건이 합의됨에 따라 대만 기업들의 클락, 수빅지역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Philippine-Taiwan Corridor 계획의 일환. 현재까지 8 개 대만 기업이 클락지역에 진출, 3.6 억달러를 투자한 상태임. (수빅에는 79 개 대만기업이 7.8 억 달러 투자). 일례로 대만 LCD 기업인 Great Sun Opeoelectronics Corp. 사가 작년 4 월 1 차로 5 백만 달러를 투자, 종업원 500 명 규모의 초박막 LCD 모니터 생산공장 건설계획을 밝힌바 있음.
- 이외 2008.10 월 100 개 이상 대만 신발업체가 클락 또는 수빅으로의 집단 진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바이어들의 선호와, 카오슝-수빅-클락 투자협정하에서 특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임.
- CDC 는 클락경제자유구역내 20ha 부지를 외국인 전용 섬유공단으로 조성 계획, 이는 중국, 베트남을 떠나 신규 이주하는 외국의류기업을 주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CDC 는 세금감면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음. 현재 관심 기업들과 입주 협의중
- 한국 P&C Int'l Company 와 CDCsms 2008.12 월 의료기기(성형 의료 장비 포함) 제조, 조립 공장 설립 투자건에 서명, 투자규모는 72 백만페소(약 150 만 달러), 첫째 고용인원은 45 명, J.P. Laurel Ave. 8,720 s/m 부지에 세워질 것임.

- 이외 한인소유의 Jangwon Real Estate Development Inc.가 30 억 페소(약 62 백만달러)를 투자, Angles 지역에 리조트 형태의 주상복합단지 조성 예정. 2009.4 월 준공식 개최 예정임. 프로젝트 명은 'The River Castle and Learning Institute'로 장원과 필리핀 기업이 합작 한국인 유학생과 은퇴자들을 겨냥 사업을 추진중임. 동단지에는 고급 콘도, 맨션, 타운홈, 어학교육센터가 입주 예정. 13 헥터 부지에 700 세대 콘도, 105 개 주택, 16 개 상점과 어학원 등이 들어설 계획임.

□ 클락경제자유구역내 비즈니스 비용

구분	비용	비고
임차비용	토지: 0.10/sm, 월 ~, 빌딩: 0.50/sm, 월 ~ * 사업개시 4 년이후 3 년간 매년 10% 인상, 이후 3 년마다 임차료 갱신	제조, ICT, 관광산업 적용 비용
최저 인건비	비농업분야(제조, 관광, 면세점 등) - 자산 3 천만페소 이상기업: P302(U\$6.83) - 자산 3 천만페소 미만기업: P29.4.5(U\$6.66) 소매/서비스 분야 소기업 - 종업원 16 명 이상: P291.00(U\$6.57) - 종업원 16 명 미만: P277.00(U\$6.26)	2008.12 월, 1 일 최저인건비 기준
전기	4.07/kw (2007.12 월 평균)	NAPCOR 로부터 Transco 를 통해 공급
통신	상업용: Php 983.14/월, 가정용: Php 567.56/월 국내전화: Php 3.75/분, 국제전화: U\$0.36/분	2008.12 월, PLDT Clark Telecom Inc. 기준
상하수도	산업/상업용 - 최초 0~10 Cu.m.: Php 218.21 - 11~20 Cu.m.: Php 23.49 - 21~30 Cu.m.: Php 24.88 - 31 Cu.m. 이상: Php 26.26 주거용 - 최초 0~10 Cu.m.: Php 109.11 - 11~20 Cu.m.: Php 11.78 - 21~30 Cu.m.: Php 12.44 - 31 Cu.m. 이상: Php 13.09 하수처리비: 수요요금의 40%	자료: Clark Water Corporation
쓰레기 처리	대형 쓰레기(봉투규격: 360X32 m³) 중소형 쓰레기(봉투규격:30X36X0.02 mm)	중량제 실시

* 기타 각종 등록 비용 및 수수료는 CDC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Clark Freeport Zone Investor's Guide 참조

□ 투자인센티브 내역

- 총소득(Growth Income)의 5%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 원자재, 자본재 수입시 관세 면제
- 100% 외국인 지분 소유 가능
- 투자가 특별비자 발급 및 역내 무제한 면세품 구매 가능

□ 클락지역은 수빅, 마닐라, 세부 지역과 함께 외국기업의 주요 투자기지로 각광 받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은 CDC 및 해당지역 진출 외국기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옥수수경작, 한국기업과 협력 추진

- 한국 기업의 바이오연료, 식용 작물 Plantation 투자 문의 잇따라-

□ 필리핀 현지기업과 한국기업이 협력, 필리핀 내 옥수수를 경작하여 한국 등지로 수출 계획을 발표

- 필리핀 Philmaize (Industry Group Philippine Maize Federation, Inc.) 사는 한국 한국해외 곡물투자개발(주) (The Korea Overseas Grain Investment & Development Co. Ltd.)와 협력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

- 동 협업을 통해 Cagayan Valley 소재 1만 헥타 부지에서 사료용 옥수수 (Yellow Corn)를 경작하여 해외로 수출한다는 계획임.

□ Philmaize Navarro 사장은 지난 4.23일 '전국돈육컨벤션'에 참석, 인터뷰를 통해 자사가 필리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한국해외곡물개발이 우선 6억페소(약 12백만달러)를 투자 할 것이며, 금년 상반기내 협력 계약을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Navarro 사장은 우선 생산 옥수수의 일부를 국내 소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량 수출을 목표로 한다고 함.

- Philmaize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0톤 내외의 옥수수(Yellow Corn)을 시범적으로 한국에 수출한바 있으나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프로젝트 추진이 빠르지 못했다고 함. 곡물가 약세로 한국 바이어들은 동사가 당초 예상한 톤당 \$330~350 보다 낮은 \$290~\$300을 요구했다는 것임.

□ 협력계획안에 따르면 동 J/V는 800여 지주로부터 1만 ha를 임차 예정이며, 경작지는 Isabela의 Mallig 지역에 소재함.

- 필리핀 전체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은 hectare당 2.6~2.7톤에 달하는 점 감안시, 이번 협력 기업은 매 경작시 26,000~27,000톤의 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됨.

- 옥수수 경작면적면에서 2008년 기준 Cagayan 지역은 필리핀 전체 옥수수 경작지인 1.88 백만헥타의 15.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부 Luzone이 14%, 서부 Visayas 지역이 12% 차지
 - 필리핀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내 옥수수 경작지는 260만 헥타이며, 추가로 130만 헥타 개발이 가능
 - Navarro 사장은 Isabela 지역에만 10만 헥타의 신규 옥수수 농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
 - 2008년 필리핀 옥수수 생산량은 692만톤으로 전년보다 4% 감소했으며, 이는 비료값 인상과 악천후 등에 기인함.

- 최근 한국기업의 필리핀내 농업투자는 식용과 바이오연료 면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최근 1년새 5개 정도의 한국기업이 마닐라 KBC를 방문 필리핀 농업분야 투자 관련해서 상담을 수행했을 정도임.
 - 식용 작물 투자는 옥수수, 카사바 등에 집중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연료 생산 관련 투자 작물은 자트로파, 카사바, 코코넛 등이 각광받고 있음.
 - 필리핀 기업과 합작 대지를 임대, 경작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 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투자 수행 시에는 토지임대 계약의 적법성 여부, 해당 작물의 수익성과 용도, 현지 지역사회와 갈등 요인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본 후 투자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임.

필리핀 석유공사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 진출, 외국기업과 협력 추진 등
- 캐나다 기업과 포괄적 협력 합의, 한국기업과 협력 가능성도 검토 -

□ 필리핀 국영석유공사(PNOC) 의 재생에너지 자회사인 PNOC Renewable Copr.가 캐나다 기업인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Constellation Energy Corp. 사와 2010년이후 추진예정인 프로젝트에서 포괄적 협력기로 합의 (4.23일 현지 신문 보도)

- 협력분야는 상호 기술, 경영노하우, 관리, 금융 교환 등 포괄적임.

- Constellation Energy 는 토론토에 본사를 둔 Enersia Renewable Corp. 자회사임.

□ 2008.4월 설립된 PNOC Renewable 사는 PNOC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 상업화 부분을 맡고 있음.

- PNOC Renewable는 PNOC가 2007년 지열 발전사업부인 EDC 매각, 2008년 필리핀 최대 정유사인 PEtron Copr.사 지분 매각 대금을 활용키 위해 설립. (필리핀 정부는 2008.11월 PNOC가 257억페소(약5.3억달러) 에 달하는 37.5억주의 Petron 지분을 영국기업인 Ashmore Group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

- PNOC Cailao사장은 이보다 앞서 4.13일 인터뷰에서 페트론 지분매각 자금 등을 활용 올해 안에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분야에서 늦어도 3분기 중에 2개 이상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PNOC 측은 수십 억페소가 소요될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협력 및 투자 파트너를 찾고 있는 중임.

- PNOC는 현재 자회사로 PNOC Renewables Corporation(재생에너지 사업부), PNOC Alternative Fuels Corporation(바이오에너지 사업부) 등을 운영 중

- Cailao사장은 루존지역에 금년 중 3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음.

- 이외 PNOC는 지난해 Shell Solar Philippines로부터 25백만페소(약 52만달러) 상당의 태양 광전지(Photovlotaic)를 구매하여 태양열주택시스템(Solar Home System)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을 개시한바 있음. 이는 주로 현재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함. PNOC는 지금까지 15,100개의 태양전력시스템을 설치, 2단계 프로젝트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000개 태양전력시스템을 설치, 13억페소 수입을 거둔다는 계획임.

□ PNOC Renewables 사장인 Pedro Maniego는 '당장 착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시범적으로 25~50MW 급 발전설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고 밝힘.

- Enerasia CEO인 Jame Mackay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PNOC와 합작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고 밝힘.

- 이들 두 개사는 현재 에너지 부족난을 겪고 있는 민도로, 팔라완, 비사야스 등지에서의 프로젝트를 검토 중

□ KOTRA 마닐라 KBC가 만난 PNOC Renewable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는 현재 태양열, 풍력, 폐기물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기업과의 협력도 고려 중이고, 이미 2개 한국기업이 동사를 접촉한바 있다고 함.

□ 한편 PNOC의 Cailao 사장은 2007년 지열발전 사업부인 PNOC EDC(PNOC Energy Development Corp)를 Lopez 그룹에 매각하면서 당시 비경쟁 협약을 맺은바가 없어 지열발전 부문에 다시 진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 EDC는 1976년 설립된 PNOC 산하 에너지사로 필리핀 내 지열에너지 탐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년에 필리핀 최대 배전사(Meralco) 운영사인 Lopez 그룹에 매각

- 매각 당시 EDC는 9개 지열발전소를 운영, 연간 1,145MW 전기를 생산 필리핀 전체 지열발전의 60%를 생산했었음.

▣ 투자 Project 정보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1

Area Coverage	1,603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Date File	November 5,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s. Susan P. Lim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2

Area Coverage	1,235.25 hectares
Mining Tenement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Date File	October 1, 2007
Location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Commodity	Gold, Copper, Silver, etc.
Ore Analysis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Locator	Mr, Quirico G. Pe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Private Equity Adviser)인 Argosy 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 (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저희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 meters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244 million in Stage 1 and \$ 2 billion in Stage 2 and pretax profit of \$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1.2 billion for Stage 2.

-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890 (5.3% Ni) and cost is \$339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3,271 per ton and lowest \$574 per ton.

-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350 and cost is \$247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19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800 per ton and lowest \$200 per ton.

-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Three 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 (\$15/ton). Current price is \$47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75 per ton and the lowest \$19 per 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for domestic processing.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The opportunity is to partner with a local company in deploying highly efficient, clean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already experiencing power shortages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get worse over the next years.
- The local company has preferred access to large amounts of affordable domestic coal. Using coal to generate electricity is by far cheaper than using oil, bunker or diesel. Domestic coal is 30% cheaper than imported coal.
- The local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deploying highly efficient,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with no access to vi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oorly served by the grid. These niche markets are highly profitable and its relative small size will not attract significant competition from major power players. The objective is to deliver at least 500MW in the next 3/4 years.
- Partnering with the local company will generate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s Secure long term coal supply. Low power generation costs. The local company will price the coal to offset any potential inefficiency from smaller coal power plants. Secure affordable financing. Smooth and fast approval of power projects.
- The local partner is currently working on two deals with an IRR of 24% to 46%.

▣ 경제 단신

Iloilo 시, 비즈니스 지구 및 항구 현대화 프로젝트 투자가 찾아

- Iloilo 시정부는 비즈니스 중심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재개발과 Iloilo 항구 확장개선 사업을 위해 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비즈니스중심지구는 시내 JM Basa, Ledesma, Iznart, Arroyo, Aldeguer Streets 및, Iloilo 중앙시장, 1.37ha 의 Iznart Street 일대를 포함.
 - 항구 프로젝트는 Iloilo-Guimaras 간 페리 이용객 증대를 위해 Parola, Buenavista, Jordan 선창 현대화에 집중
- Trenas Iloilo 시장은 Consultants for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ning Inc.사를 통해 작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대 효과 감안시, BOT 또는 J/V 방식의 프로젝트 추진 가능하다고 밝힘. (Business World, 4.29)

Calaca 석탄화력발전소(600MW급) 민영화 재입찰(7.7)에 10여개사 관심 표명

- '09.7.7 일 예정된 Calaca 석탄화력발전소(600MW 급) 민영화 재입찰에 10 개사 관심 표명
 - 관심 표명 기업은 AES Corporation(미국), International Power Plc(유럽), 동서발전(한국) 및 필리핀 기업이 주도하는, Aboitiz Group, San Miguel Corporation, DMCI Holdings of the Consunji Group, SPC Power Corp.,외 2 개 투자회사임..
- 한편 2009.1 월 동 발전소에 관심을 보였다가 발전소 운영상태가 문제가 있다며, 입찰 (당시 입찰가 US\$7.87 억) 참여를 포기했던 Suez Energy(프랑스-벨기에 합작사)사도 필리핀 파트너를 통해 입찰에 재 참여 예정임.
- 필리핀 발전소 민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는 동 발전소의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이번 재입찰에서는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 (Manila Bulletin, 4.16)

필리핀 정부, 5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Leyte, Kananga 지역 선정

- Arroyo 대통령이 필리핀 내 5 번째 경제자유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Leyte, Kananga Town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
 - Leyte 경제자유구역은 Montebello 바랑가이의 300,408m² 규모로 조성, 전자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임.
 - 2007.9.10 일 서명된 Executive Order 661 는 Albay, Laguna, Leyte, Negros Oriental and Sorsogon, North Cotabao, Negros Occidental 를 특별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토록 하고 있음. (Business World, 4.30)

Iloilo 시 수력, 풍력분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검토

- Perez 서부 Visayas 지역개발위원회는 Iloilo 시 일대에 풍력 및 수력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 Aklan, Antique, Negros Occidental 지역에서 총 62MW 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가능하며, 현재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
 - 이외 Aklan Caticlan, Antique Pandan, San Remego, Negros Occidental 의 San Carlos 일대는 풍력발전소 건설이 유망하다고 언급 (Business World, 4.30)

Tampakan 구리 광산개발, 60억 달러 투자 필요

- Laufmann, Indophil Resources (NL) CEO는 세계 최대 수준의 구리/금 매장지대인 Tampakan 광산 개발을 위해 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언급
 - 동사의 필리핀 합작사인 Sagittarius Mines는 지난주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시 개발 비용이 5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음.
 - 동 광산 일대에서는 환경 및 지역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Maoist-led New People 반군 문제도 투자 걸림돌로 작용
 - 동 광산 개발시,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중 하나로 자리잡을 예정이며, 이에 필리핀 정부는 프로젝트 개발 위한 연구용역을 지속한다는 계획임. (Business World, 4.30)

필리핀 전력규제 당국(ERC), 메탈코사 전기요금 인상 승인

- 필리핀 전력요금 규제 당국인 ERC(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필리핀 최대 배전 기업인 Meralco(Manila Electric Co.)의 전기료 인상과 요금 책정방식 변경을 승인
 - 2009.5 월부터 6 년간, 2008 년의 0.9657 페소/kWh 보다 0.2570 페소 인상된 1.227 페소 /kWh 의 요금 적용
 - 전력요금의 책정도 과거 비용대비 산출방식(Cost-Plus)에서 전기회사의 성과(rewards and Penalties 방식)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PBR(Performance-Based Regulation Scheme) 방식으로 변경.
 - 이번 조치는 2003 년 Meralco 측이 정부에 요청한 후 3 년만에 승인을 받았으나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지연되온 것으로 영국, 미국, 호주 등 이 채택중인 방식임.

- Meralco 측은 이번 조치로 전기 소비자의 추가 가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
 - ERC 는 Meralco 측에 환율조정에 따른 부당 징수분 39 억페소를 소비자에 환급토록 지시. 이에 환급액이 0.0400 페소/kWh 에서 0.1061 페소/kWh 로 증가, 또한 5 월 이후 송전비용도 0.1061 페소/Kwh 인하 예정
 - 이에 따른 소비자 이익이 Kwh 당 0.0400+0.1061 페소로 전기료 인상분(0.2570 페소)보다 높다는 입장임. (Business World, 4.24)

ADB,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 위해 US\$16억불 자금 필요

- ADB 가 최근 발표한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n Southeast Asia: A Regional Reiveiw' 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20 년까지 매년 U\$50 억 달러 가량이 필요하며, 이중 필리핀은 U\$16 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

▣ 투자진출 A to Z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송금세 적용은?

법인세

2009.1.1 이후 법인소득세율(Income Tax)은 30%이며, 단 필리핀내 투자유치 기관(BOI, PEZA, SBMA, CDC 등)에 등록시 총소득(Gross Income)의 5%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유치 기관의 경우 과세대상을 Gross Income 으로 하며, 각종 공제기준이 상이하여, 이들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자사에 중장기적으로 유리한지는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BOI(투자위원회), PEZA(경제자유구역청) 등록시 해당기업은 중앙은행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경우 과실송금 신고 절차 및 각종 인센티브 혜택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송금세

필리핀세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비교적 과실송금이 용이합니다. 15 만 페소 이상 송금시 은행에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이사회 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자금원별 송금세율은 이자소득 20%, 배당금 15%, 로약티 수익 10%, 컨설팅 등 서비스 용역 수익 25% 등입니다.

▣ 주요 경제 지표

	2006 년	2007 년	2008 년
GDP 성장률(%)	5.4	7.2	4.6
1 인당 국민총생산(USD)	1464	1770.9	1507
필리핀 물가지수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6.9%	2.3%	6.0%
인플레이션 (2000 년=100)	5.5%	2.8%	6.2%
단기채권(91 일) 이자율	5.35%	3.41%	5.39%
정기예금 이자율	4.94%	3.41%	4.06%
대출금리	9.71%	8.68%	8.76%
경상수지(USD 백만불, %)	-6732	-8211	-6994 (11 월)
수출(USD 백만불, %)	46526	49512	46351
	15.6%	6.4%	0.8% (11 월)
수입(USD 백만불)	53258	57723	53345
	10.9%	8.4%	5.6%
총 투자(USD 백만불)	-118	2865	1640 (9 월)

환율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11월	12월	3월	4월
페소/ 달러	45.93	46.92	48.75	48.88	48.54	48.21
원/ 달러	9353	1324.2	1397.3	1375.6	1460.09	1340.80
페소/원	20.39	27.73	28.54	28.82	30.24	27.97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